

대학생의 헤어패션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김 병 미[†] · 유 미 근*

공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의류상품학과 교수 · 유구중학교 교사*

A Study on the Hair Fash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Byeong-Mee Kim · Mi-Geun Yoo*

Prof., Dept. of Fashion Design & Merchandising · Teacher, YuGu Middle School*

(2003. 11. 20.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cognize college students' thinking way for hair fashion. The tendency of hair style, hair dyeing and hair administration was examined with college students in Seoul, some cities and towns. Research analyzed and compared the result according to the distinction of sex, age and area.

The questionnaire was asked to 257 boy students and 328 girl students.

The result in this research is as following.

1. It was shown that our country college students were satisfied with their hair style on the whole. Especially, college students in Seoul appeared more satisfied tendency than other city or town.

Seoul's college students preferred hair style of short haircut. Wide area city or small town's college students preferred long hair style.

The degree of satisfaction about beauty salon service of Seoul city's college students is higher than that of wide area city or small town's college students. The reasons that they want to go to the beauty salon they used to are distance for boy students and excellent technology for girl students.

Boy students change hair style regularly, but girl students change it when need to change their mood.

2. In our country, most college students had experienced that they had their hair dyed. More senior students had their hair dyed than junior students. Hair color that most like was nature brown. Seoul college students liked gold color. Seoul college students are more satisfied than wide area city or small town's college students after hair dyeing. Girl students thought that hair dyeing made their hair style excellent.

4. Girl students responded that their hair was much damaged. College students in Seoul had healthy hair. Girl students selected 「beauty art surgical operation」 for cause of hair damage, and boy student had the various causes of hair damage. College students in Seoul had much hair damage than students in any other area. Most were using shampoo, and girl students used much shampoo than boy students. Girl students selected shampoo according to their hair state, Seoul's college students had their hair washed with shampoo more frequently than other students.

Girl students were getting more hair administration information with various form than boy students. Girl students used Hair Clinic for hair administration, but boy students never did it.

Key Words: hair fashion(헤어패션), college students(대학생), hair style(모발스타일), hair dyeing dye(모발염색), hair administration(모발관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여러 가지 주변환경의 변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현대인들은 기본적인 욕구 이외에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려는 다양한 욕구를 추구하게 됨에 따라, 젊음과 아름다움에 대한 바람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미용분야가 생활에서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미용은 하나의 예술로서 모발의 모양, 화장, 피부손질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조화시켜 전체적인 스타일로 만들어 내는 것이며, 미용 중의 한 분야인 헤어스타일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문화이며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헤어패션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와 발전을 계속해 왔으며 의상, 메이크업과 함께 패션 경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고, 개성의 강조와 유행의 물결 속에서 머리 예술을 새롭게 선도해 나가고 있다.¹⁾

모발을 가다듬는 것은 신체 보호의 기능 이외에 주술적인 면과 심미적인 기능을 지닌 인간의 종합적 표현 수단이다. 우리 조상들은 머리를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라고 여겼으며²⁾, 헤어스타일은 사회적 현상을 나타내는 한 지표로 그 사람의 지위, 계급, 신분, 혼인여부 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현대 사회에서도 헤어패션은 머리가 눈에 쉽게 띄고 변화를 주기 용이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연출하고자 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헤어패션은 다양한 개성을 연출할 수 있고, 사람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어서 모발의 길이, 형태, 색상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³⁾

따라서 모발이라는 살아 있는 예술적인 소재를 통해 사람의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헤어패션은 최근 TV 등의 대중매체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매우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고 있다.⁴⁾⁵⁾⁶⁾ 해

어패션의 연출을 위한 모발에 대한 관심의 범위는 일상적인 손질에서부터 의례 등 많은 부분에까지 미치고 있어 현대인들은 모발에 물리적·화학적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을 치장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필수적인 모발관리를 올바르게 함으로써 모발 손상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미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노력이 더욱 풍부해지고 있다.⁷⁾

그러나 청소년 시기인 중·고등학생은 학교 교칙에 따른 규제된 생활의 연속으로 인하여 자신의 개성 표현, 유행에 따른 패션을 연출할 기회가 거의 없다. 이러한 제약을 받으며 욕구를 억제해 온 청소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면서 자신의 개성 표현은 물론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노력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탈 패션 시대라 일컫는 현대를 살아가는 대학생의 헤어스타일, 모발염색, 모발관리 등 헤어패션에 대한 행동을 알아보고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비교·분석함으로써 대학생 및 우리나라 사람의 헤어패션행동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모발 염색

모발염색의 시작은 기원전 3000년경으로,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행해졌다고 하며 흰색 모발을 커버하기 위해 검은 암소의 피와 거북이 등껍질, 선인장의 열매, 각종 식물의 즙을 추출해 사용하기도 하였고 염료식물로 쓰이는 관목인 헨나(henna)를 사용한 기록도 있으며 광물질인 황토, 백토, 혹은 돌가루를 이용하기도 했다. 이때의 모발염색 행위는 조상들의 선행이나 계급의식의 일부로서 모발에 다른 색을 연출하면서 신분의 차이 등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⁸⁾

20세기 헤어스타일에 있어 최대의 화두는 염색과 패션가발이었다. 이때 헤어 컬러링(hair coloring)이 일반화되면서 하나의 패션으로 자리잡았고, 모발 전체를 염색하기도 하고 부분염색으로

¹Corresponding author ; Byeong-Mee Kim
Tel. +82-19-254-8240, Fax. +82-41-850-8300
E-mail : kimbm@kongju.ac.kr

멋을 내기도 했다.⁹⁾

모발염색이란 일반적으로 모발의 자연적인 색조를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¹⁰⁾ 모발염색은 백발에 색을 주어 본래 색상의 모발로 연출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다양한 색상을 줌으로써 패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모발염색을 표현하는 말로는 헤어 컬러링, 헤어 다이(hair dye) 또는 헤어 틴트(hair tint) 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헤어 다이는 「착색」이라는 뜻이고 헤어 틴트는 「색소를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헤어 블리치(hair bleach)가 탈색에 의해 검은 모발의 색깔을 엷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데 비해 헤어 틴트는 염색제를 써서 모발의 색깔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일컫는다.

오늘날 사용하는 화학 염색제의 기원은 1863년 독일의 호프만(Hofmann)에 의해 개발된 파라-페닐렌디아민(p-Phenylene diamine)에서 비롯된다. 그 후 1924년 미국의 에반스(Evans)에 의해 파라-톨루엔디아민(p-Toluene diamine)이 개발되었다. 파라-페닐렌디아민은 초기에는 유럽에서 염색제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이후 피부 알러지성이 알려지면서 대신 파라-톨루엔디아민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염색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¹¹⁾

3. 모발관리

모발관리는 아름다운 헤어패션과 모발의 건강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¹²⁾ 샴푸(shampoo), 모발 및 두피의 처치(hair treatment & scalp treatment), 린스(rinse) 등이 포함된다.

모발은 양모와 같은 일종의 동물성 천연섬유로 주성분은 80~90%의 유황을 함유한 케라틴이라는 단백질과 멜라닌 색소, 피질, 미량원소, 수분 등으로 되어 있다. 모발을 구성하고 있는 케라틴은 물리적·화학적으로 강한 것이 특징이며 보통 단백질과는 달리 쉽게 부패하지 않고 여러 화학약품에 대해 저항력이 크다. 그리고 물리적 강도 역시 강하며 탄력도 크다. 이러한 건강한 모발은 대체로 손상을 받지 않으나 pH 3이하 또는 강알칼리를 가

하면 분해된다.¹³⁾ 따라서 모발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하고자 할 때는 언제나 등전점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폼제, 염모제 등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모발을 등전점인 약산성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모낭에 부속되어 있는 피지선에서는 천연 오일인 피지를 분비하여 산성막을 형성하는데 모발과 두피를 얇게 덮고 있어 보습과 부드러움을 주게 된다. 또한 살균과 미생물의 감염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모발미용에서 다루어지는 물리적, 화학적인 시술들에 의하여 이러한 천연오일의 분비를 가속시키게 되어 모발은 건성화 된다.

그러므로 모발관리를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모발미용 시술인 샴푸 시에는 피지선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분비된 피지를 모발과 두피에 어느 정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오염물질이 제거되어야 하며 잦은 샴푸는 모발을 더욱 건성화시키기 때문에 산성린스 또는 모발상태에 따른 헤어트리트먼트제의 사용으로 모발에 보습과 영양을 주어야 한다.

머리를 빨리 말리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비비면서 말리거나 헤어 드라이어기로 뜨거운 바람을 쐬어 말리면 모발에 스트레스를 주어 모발이 손상된다. 또 건강한 모발관리를 위해서는 너무 힘을 주어 빗질을 하거나 밑에서 위로 머리털을 곧추 세워서 빗게 되면 모발에 손상을 가져오므로 주의해야 한다.¹⁴⁾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과 절차에 의해 수행되었다.

1. 조사 대상자 및 조사 기간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광역시(대전·광주·부산), 중소도시(공주·논산·수원)에 소재 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19세~27세까지의 남학생 257명, 여학생 328명 총 585명이며, 조사기간은 2002년 9월 10일부터 12월 10일 중에 실시되었다.

표집 대상자의 통계적 변인은 <표1>과 같다.

〈표1〉 표집 대상자의 통계적 변인

구분	성별		연령별			지역별			전체
	남	여	19-20세	21-22세	23세이상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인원 (f)	257	328	195	176	214	184	206	195	585
비율 (%)	43.9%	56.1%	33.3%	30.1%	36.6%	31.5%	35.2%	33.3%	100%

2. 조사 도구 및 내용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 도구는 선행연구¹⁵⁾¹⁶⁾¹⁷⁾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으며, 헤어스타일에 관한 내용 8문항, 모발염색에 관한 내용 5문항, 모발관리에 관한 내용 8문항 등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처리 및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시하였으며, 빈도 분석, χ^2 -test, 교차 분석을 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대학생의 헤어패션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헤어스타일, 모발염색, 모발관리에 대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헤어스타일

1) 현재의 헤어스타일, 만족도 및 원하는 헤어스타일

조사 대상자의 현재 헤어스타일에 대한 조사 결과, 남학생은 「짧은 커트」가 가장 많았으며 (68.0%), 여학생은 「층이 있는 긴 머리」39.0%, 「층이 없는 긴 머리」24.0%, 「단발머리」27.6%로 나타

〈표2〉 현재의 헤어스타일, 만족도 및 원하는 헤어스타일

구분	요인	성별		연령별			지역별			전체
		남학생	여학생	19-20세	21-22세	23세이상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현재 헤어스타일	짧은 커트	173(68.4)	17(5.2)	54(28.4)	48(27.4)	88(41.3)	82(44.6)	56(27.6)	52(27.1)	190(32.8)
	단발머리	45(17.8)	90(27.6)	48(25.1)	45(25.7)	42(19.7)	44(23.9)	45(22.2)	46(24.0)	135(23.3)
	층있는 긴머리	12(4.7)	28(39.3)	50(26.2)	48(27.4)	42(19.7)	15(8.2)	64(31.5)	61(31.8)	140(24.2)
	층없는 긴머리	13(5.1)	80(24.5)	32(16.8)	27(15.4)	34(16.0)	39(21.2)	29(14.3)	25(13.0)	93(16.1)
	울림머리	10(4.0)	11(3.4)	7(3.7)	7(4.0)	7(3.3)	4(2.2)	9(4.4)	8(4.2)	21(3.6)
	계	253	326	191	175	213	184	203	192	579
	χ^2, p 확률	282.807, .000***		12.392, .135			46.301, .000***			
헤어스타일 만족도	매우만족	31(12.1)	31(9.5)	17(8.7)	20(11.4)	25(11.7)	37(20.1)	14(6.8)	11(5.6)	62(10.6)
	만족	96(37.4)	116(35.5)	64(32.8)	72(41.1)	76(35.5)	110(59.8)	49(23.9)	53(27.2)	212(36.3)
	보통	94(36.6)	139(42.5)	82(42.1)	65(37.1)	86(40.2)	32(17.4)	104(50.7)	97(49.7)	233(39.9)
	불만	25(9.7)	36(11.0)	25(12.8)	15(8.6)	21(9.8)	3(1.6)	30(14.6)	28(14.4)	61(10.4)
	매우불만	11(4.3)	5(1.5)	7(3.6)	3(1.7)	6(2.8)	2(1.1)	8(3.9)	6(3.1)	16(2.7)
	계	257	327	195	175	214	184	205	195	584
	χ^2, p 확률	6.515, .164		6.294, .164			121.079, .000***			
원하는 헤어스타일	짧은 커트	97(39.1)	36(11.2)	40(21.2)	34(20.0)	59(28.0)	53(28.8)	50(25.1)	30(16.0)	133(23.3)
	단발머리	69(27.8)	91(28.3)	42(22.2)	45(26.5)	73(34.6)	86(46.7)	29(14.6)	45(24.1)	160(28.1)
	층있는 긴머리	33(13.3)	88(27.3)	52(27.5)	38(22.4)	31(14.7)	10(5.4)	61(30.7)	50(26.7)	121(21.2)
	층없는 긴머리	28(11.3)	76(23.6)	38(20.1)	34(20.0)	32(15.2)	31(16.8)	31(15.6)	42(22.5)	104(18.2)
	울림머리	21(8.5)	31(9.6)	17(9.0)	19(11.2)	16(7.6)	4(2.2)	28(14.1)	20(10.7)	52(9.1)
	계	248	322	189	170	211	184	199	187	570
	χ^2, p 확률	71.680, .000***		19.733, .011*			94.725, .000***			

*** p<.001 ** p<.01 * p<.05

〈표3〉 헤어스타일에 관한 정보수입원

구분	요인	성별		연령별			지역별			전체
		남학생	여학생	19-20세	21-22세	23세이상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정보수 집원	방송매체	43 (16.7)	55(16.8)	33(16.9)	36(20.5)	29(13.6)	41(22.3)	30(14.6)	27(13.8)	98(16.8)
	잡지, 정보지	23(8.9)	80(24.4)	39(20.0)	32(18.2)	32(15.0)	47(25.5)	22(10.7)	34(17.4)	103(17.6)
	디자이너초언	22(8.6)	47(14.3)	20(10.3)	23(13.1)	26(12.1)	18(9.8)	35(17.0)	16(8.2)	69(11.8)
	주변사람	29(11.3)	50(15.2)	31(15.9)	22(12.5)	26(12.1)	23(12.5)	28(13.6)	28(14.4)	79(13.5)
	자신의판단	140(54.5)	96(29.3)	72(36.9)	63(35.8)	101(47.2)	55(29.9)	91(44.2)	90(46.2)	236(40.3)
	계	257	328	195	176	214	184	206	195	585
	χ^2, p 확률	47.946, .000 ***		10.140, .255		32.217, .000 ***				

*** p<.001 ** p<.01 * p<.05

나, 대부분의 여학생이 짧은 커트 머리보다 긴 머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현재의 헤어스타일 중「단발머리」(17.8%), 「긴 머리」(9.8%)도 상당한 비율로 나타나, 남학생도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짧은 커트 머리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헤어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짧은 커트」44.6%, 「단발머리」 23.9%, 「층 없는 긴 머리」21.2%, 「층 있는 긴 머리」8.2% 순으로 나타나서 「짧은 커트」를 선호했으며, 광역시와 중소도시의 응답자는 긴 머리를 선호하는 경향이어서, 지역에 따라 헤어스타일에 차이가 있었다 (p<.001).

또한 조사 대상자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만족도

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자신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보통이다」 39.9%, 「만족한다」가 36.5%로 응답해서 대체로 자신의 헤어스타일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의 경우「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에 79.9%가 응답해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광역시는 30.7%, 중소도시는 32.8%가 응답해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이 자신의 헤어스타일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대학생이 원하는 헤어스타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지역별 비교에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원하는 스타일이 「단발머리」46.7%로 한 가지 스타일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광역시와 중소

〈표4〉 미용실 서비스 만족도 및 선택 이유

구분	요인	성별		연령별			지역별			전체
		남학생	여학생	19-20세	21-22세	23세이상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미용실 서비스 만족도	매우만족	15 (5.8)	19(5.8)	10(5.2)	9(5.1)	15(7.0)	17(9.2)	10(4.9)	7(3.6)	34(5.8)
	만족	55(21.4)	94(28.7)	45(23.2)	51(29.0)	53(24.8)	62(33.7)	45(21.8)	42(21.6)	149(25.5)
	보통	154(59.9)	173(52.9)	108(55.7)	91(51.7)	128(59.8)	98(53.3)	118(57.3)	111(57.2)	327(56.0)
	불만	26(10.1)	36(11.0)	26(13.4)	20(11.4)	16(7.5)	7(3.8)	25(12.1)	30(15.5)	62(10.6)
	매우불만	7(2.7)	5(1.5)	5(2.6)	5(2.8)	2(0.9)	0(0.0)	8(3.9)	4(2.1)	12(2.1)
	계	257	327	194	176	214	184	206	194	584
χ^2, p 확률	5.416, .247		8.832, .357		32.981, .000 ***					
헤어 스타일 만족도	서비스질	54(21.0)	90(27.6)	49(25.3)	39(22.2)	56(26.3)	27(14.7)	62(30.2)	55(28.4)	144(24.7)
	기술	40(15.6)	98(30.1)	48(24.7)	45(25.6)	45(21.1)	52(28.3)	41(20.0)	45(23.2)	138(23.7)
	인테리어	2(0.8)	2(0.6)	1(0.5)		3(1.4)	2(1.1)	1(0.5)	1(0.5)	4(0.7)
	가격	63(24.5)	62(19.0)	30(15.5)	46(26.1)	49(23.0)	37(20.1)	36(17.6)	52(26.8)	125(21.4)
	거리	91(35.4)	49(15.0)	51(26.3)	36(20.5)	53(24.9)	56(30.4)	58(28.3)	26(13.4)	140(24.0)
	유명도	7(2.7)	25(7.7)	15(7.7)	10(5.7)	7(3.3)	10(5.4)	7(3.4)	15(7.7)	32(5.5)
	계	257	326	194	176	213	184	205	194	583
χ^2, p 확률	48.625, .000 ***		14.928, .135		35.940, .000 ***					

*** p<.001 ** p<.01 * p<.05

도시의 경우는 층이 있거나 없는, 그리고 긴 머리를 고루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이 원하는 헤어스타일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01$). 즉, 서울특별시에 소재 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이 주로 단발머리를 원하는 반면, 광역시나 중소도시 대학생은 다양한 형태의 헤어스타일로 바꿔 보고 싶어 함을 알 수 있었다.

2) 헤어스타일에 관한 정보수집원

자신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에 관한 정보수집은 남학생의 경우에는「자신의 판단」54.5%, 「방송매체」16.7%, 「주변사담」11.3%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에는「자신의 판단」29.3%, 「잡지·정보지」24.4%, 「방송매체」16.8% 순으로 나타나서 여학생이 전문성이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반면 남학생은 자신이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보였다($p<.001$). 이는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정보를 여러 경로를 통해 얻어서 유행과 개성을 추구하면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찾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 볼 때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자신의 판단」29.9%, 「잡지·정보지」25.5%, 「방송매체」22.3%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어 자신의 헤어스타일에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광역시나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46.2%가「자신의 판단」이라

고 응답해 다른 정보에 의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헤어스타일을 결정하고 있어서 지역 간에 차이가 있었다($p<.001$).

3) 미용실 서비스 만족도 및 선택 이유

미용실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보통」56.0%, 「만족」25.5%, 「매우 만족」5.8%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소도시보다 대도시의 학생이 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조사 대상자가 미용실을 선택하는 이유는「서비스」24.7%, 「거리」24.0%, 「기술」23.7%, 「가격」21.4% 등 비슷한 비율로 응답해, 대학생은 그들의 특성과 취향에 따라 미용실을 선택하는 이유가 다양한 것으로 생각된다. 남학생의 경우는「거리」35.4%, 「가격」24.5%, 여학생의 경우에는「기술」30.1%, 「가격」순으로 나타나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남학생은 짧은 커트를 주로 하기 때문에 편리성을 추구하거나 경제적인 면을 고려한다고 생각되며, 여학생은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원하고 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 미용실을 선택하는 이유에 있어서 남녀간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의 경우「거리」30.4%, 「기술」30.2%, 「가격」20.1%, 광역시의 경우「서비스」

〈표5〉 헤어스타일 변형 이유 및 빈도

구분	요인	성별			연령별			지역별			전체
		남학생	여학생	19-20세	21-22세	23세이상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헤어스타일 변형 이유	기본전환	94(37.0)	176(53.7)	85(43.6)	89(50.9)	96(45.3)	92(50.0)	87(42.4)	91(47.2)	270(46.4)	
	정기적	123(48.4)	98(29.9)	75(38.5)	65(37.1)	81(38.2)	68(37.0)	87(42.4)	66(34.2)	221(38.0)	
	유행따라	22(8.7)	30(9.1)	20(10.3)	11(6.3)	21(9.9)	17(9.2)	16(7.8)	19(12.0)	52(8.9)	
	주변권유	10(3.9)	19(5.8)	13(6.7)	4(2.3)	12(5.7)	4(2.2)	13(6.3)	12(6.2)	29(5.0)	
	미용사권유	5(2.0)	5(1.5)	2(1.0)	6(3.4)	2(0.9)	3(1.6)	2(1.0)	5(2.6)	10(1.7)	
	계	254	328	195	175	212	184	205	193	582	
	χ^2, p 값	22.714, .000 ***			11.289, .186			9.958, .313			
헤어스타일 변형 횟수 (년)	바꾸지않음	54(21.1)	35(10.8)	33(17.0)	15(8.7)	41(19.2)	9(4.9)	46(22.7)	34(17.5)	89(15.3)	
	1-2번	72(28.1)	136(41.8)	67(34.5)	67(38.7)	74(34.6)	46(25.0)	74(36.5)	88(45.4)	208(35.8)	
	3-4번	48(18.8)	105(32.3)	49(25.3)	48(27.7)	56(26.2)	57(31.0)	51(25.1)	45(23.2)	153(26.3)	
	5-6번	32(12.5)	36(11.1)	29(14.9)	24(13.9)	15(7.0)	38(20.7)	16(7.9)	14(7.2)	68(11.7)	
	7번이상	50(19.5)	13(4.0)	16(8.2)	19(11.0)	28(13.1)	34(18.5)	16(7.9)	13(6.7)	63(10.8)	
	계256	325	194	173	214	184	203	194	581		
	χ^2, p 값	59.595, .000 ***			16.892, .031 *			67.201, .000 ***			

*** $p<.001$ ** $p<.01$ * $p<.05$

30.2%, 「거리」28.3%, 「기술」20.0%, 중소도시의 경우 「서비스」28.5%, 「가격」26.8%, 「기술」23.2%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p<.001). 이는 조사 대상자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교통 문제, 경제적 사정, 이웃과의 유대감 등을 고려하여 미용실을 선택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우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는 미용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광역시나 중소도시는 단골 손님을 알아보고 친절하게 서비스해 주는 이웃과의 유대감을 고려하여 미용실을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4) 헤어스타일 변형 이유 및 빈도

조사 대상자인 대학생이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이유는 「기분 전환을 위해서」 46.4%, 「정기적으로 바꾼다」가 38.0%로 나타나, 유행이나 주변의 권유에 비해 자신의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분석에서는 남학생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바꾼다」는 응답이 48.4%로 가장 많았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기분 전환」이 53.7%로 나타나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헤어스타일을 기분 전환 등 자신의 심리 상태와 연관짓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p<.001).

커트, 헤어스타일, 염색 및 탈색 등을 포함하여 연간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빈도는 「1-2번」 바꾸는 경우가 35.8% 가장 많았으며, 「3-4번」이 26.3%로 나타났고, 5번 이상 바꾸는 경우는 22.5%로 나타났다. 성별비교에서는 남학생은 거의 바꾸지 않는 비율(21.1%)이 높으나, 5번 이상 바꾸는 비율(32.0%)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학생은 머리가 짧아 자주 깎기 때문에 이 때 다른 스타일로 변화를 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여학생은 1-4회에 집중(74.1%) 되어 있어서 남학생과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p<.001). 그리고 지역별 분석에서는 서울 지역의 대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대학생들보다 헤어스타일을 자주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2. 모발염색

1) 모발염색 경험 유무 및 이유

이 문항에서는 모발염색을 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79.8%, 「없다」는 응답이 20.2%로, 대부

〈표6〉 모발염색 경험 유무 및 이유

구분	요인	성별		연령별			지역별			전체
		남학생	여학생	19-20세	21-22세	23세이상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경험유무	있다	201(78.2)	265(81.0)	135(69.6)	147(83.5)	184(86.0)	148(80.4)	160(77.7)	158(81.4)	466(79.8)
	없다	56(21.8)	62(19.0)	59(30.4)	29(16.5)	30(14.0)	36(19.6)	46(22.3)	36(18.6)	118(20.2)
	계	257	327	194	176	214	184	206	194	584
	x2, p-확률	.715, .398		19.133, .000***			.951, .622			
이유	시선집중	39(18.4)	12(4.4)	16(10.9)	10(6.8)	25(13.2)	31(20.5)	12(7.2)	8(4.8)	51(10.5)
	아름다움	28(13.2)	72(26.5)	35(23.8)	35(23.6)	30(15.9)	21(13.9)	40(24.1)	39(23.4)	100(20.7)
	유행추종	27(12.7)	10(3.7)	12(8.2)	11(7.4)	14(7.4)	26(17.2)	3(1.8)	8(4.8)	37(7.6)
	변화추구	102(48.1)	168(61.8)	81(55.1)	84(56.8)	105(55.6)	65(43.0)	100(60.2)	105(62.9)	270(55.8)
	스트레스해소	8(3.8)	5(1.8)	1(0.7)	4(2.7)	8(4.2)	7(4.6)	2(1.2)	4(2.4)	13(2.7)
	기타	8(3.8)	5(1.8)	2(1.4)	4(2.7)	7(3.7)	1(0.7)	9(5.4)	3(1.8)	13(2.7)
	계	212	272	147	148	189	151	166	167	484
	x2, p-확률	52.349, .000***		12.454, .256			70.872, .000***			
모발염색하지않는이유	원머리색이좋아서	15(28.8)	22(37.9)	18(31.6)	10(37.0)	9(34.6)	18(51.4)	11(25.6)	8(25.0)	37(33.6)
	보기에안좋아서	11(21.2)	2(3.4)	5(8.8)	4(14.8)	4(15.4)	7(20.0)	3(7.0)	3(9.4)	13(11.8)
	건강에안좋아서	1(1.9)	5(8.6)	2(3.5)	3(11.1)	1(3.8)		4(9.3)	2(6.3)	6(5.5)
	정서에맞지않아서	22(42.3)	23(39.7)	28(49.1)	7(25.9)	10(38.5)	9(25.7)	19(44.2)	17(53.1)	45(40.9)
	선호색이없어서	3(5.8)	6(10.3)	4(7.0)	3(11.1)	2(7.7)	1(2.9)	6(14.0)	2(6.3)	9(8.2)
	계	52	58	57	27	26	35	43	32	110
	x2, p-확률	10.949, .027*		6.052, .641			17.308, .027*			

*** p<.001 ** p<.01 * p<.05

분 모발염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볼 때에 19-20세의 경우에는 69.6%, 21-22세 83.5%, 23세 이상은 86.0%가 염색을 한 경험이 있어서, 우리나라 대학생은 나이가 많아지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모발염색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염색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변화추구」 55.8%, 「아름다움」 20.7%, 「시선집중」 10.5% 순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대학생은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모발염색을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학생의 경우에는 「변화추구」 48.1%, 「시선집중」 18.4%, 「아름다움」 13.2%, 여학생의 경우에는 「변화추구」를 위해서 61.8%, 「아름다움」 26.5%로 응답해 남학생보다 여학생은 아름다움을 위해 모발염색을 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p<.001$). 지역별 분석에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선 집중」이 20.5%로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다른 지역은 「변화추구」에 집중되어 차이를 보였다($p<.001$).

모발염색을 해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20.2%의 대학생이 「염색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아서」가 40.9%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다소 소극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본래의 머리색이 좋아서」(51.4%),

「보기에 안 좋아서」(20.0%) 등 적극적인 뚜렷한 이유가 있었으나, 중소도시 학생은 「정서적으로 맞지 않아서」의 비율이 높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p<.05$). 여기에서 남학생은 여학생과 달리 모발염색 하는 것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여학생은 좀 더 다양한 모발색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p<.05$).

2) 모발염색 만족도 및 선호색

조사 대상자인 대학생을 전체적으로 볼 때 모발염색을 하고 난 후 「만족」하는 경우가 54.5%, 「보통」 36.8%로 나타나, 우리나라 대학생은 모발염색 후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볼 때에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남학생이 12.7%, 여학생이 5.5%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염색 후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높았다($p<.05$).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71.5% 반면, 광역시(47.9%)와 중소도시(54.5%)의 경우 만족하는 비율이 낮아서, 서울시에 소재 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광역시나 중소도시에 소재 한 대학의 학생보다 모발염색 후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p<.001$).

또한 대학생 자신이 좋아하는 모발색은 「자연갈색」 51.2%, 「검정색」 15.7%, 「황금색」 13.1% 순으로

〈표7〉 모발염색 만족도 및 선호색

구분	요인	성별		연령별			지역별			전체
		남학생	여학생	19-20세	21-22세	23세이상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모발염색 만족도	만족	110(51.6)	155(56.8)	82(56.6)	75(50.0)	108(56.5)	108(71.5)	75(45.9)	79(47.9)	263(54.5)
	보통	75(35.7)	103(37.7)	49(33.8)	59(38.0)	71(38.2)	32(21.2)	74(44.7)	71(43.0)	179(36.8)
	불만족	27(12.7)	15(5.5)	14(9.7)	18(12.0)	10(5.2)	11(7.3)	16(9.4)	15(9.1)	42(8.6)
	계	212	272	147	148	189	151	166	167	484
	χ^2, p 값들	7.855, .020*			.028, .197			26.755, .000***		
선호색	검정색	38(16.1)	48(15.3)	31(16.7)	19(11.6)	36(18.1)	16(9.8)	35(17.4)	35(19.0)	86(15.7)
	자연갈색	107(45.3)	174(55.6)	90(48.4)	86(52.4)	105(52.8)	84(51.2)	100(49.8)	97(52.7)	281(51.2)
	황금색	35(14.8)	37(11.8)	23(12.4)	24(14.6)	25(12.6)	37(22.6)	16(8.0)	19(10.3)	72(13.1)
	포도주색	13(5.5)	21(6.7)	15(8.1)	9(5.5)	10(5.5)	7(4.3)	20(10.0)	7(3.8)	34(6.2)
	흑갈색	14(5.9)	13(4.2)	7(3.8)	6(3.7)	14(7.5)	3(1.8)	12(6.0)	12(6.5)	27(4.9)
	복합색	10(4.2)	13(4.2)	6(3.2)	12(7.3)	5(2.5)	10(6.1)	8(4.0)	5(2.7)	23(4.2)
	기타	19(8.1)	7(2.2)	14(7.5)	8(4.9)	4(2.0)	7(4.3)	10(5.0)	9(4.9)	26(4.7)
	계	236	313	186	164	199	164	201	184	549
χ^2, p 값들	14.529, .024*			19.690, .078			36.219, .000***			

*** $p<.001$ ** $p<.01$ * $p<.05$

〈표8〉 모발손상 정도 및 원인

구분	요인	성별		연령별			지역별			전체
		남학생	여학생	19-20세	21-22세	23세이상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모발손상 정도	매우손상	9(3.5)	32(9.8)	17(8.7)	15(8.5)	9(4.2)	4(2.2)	22(10.7)	15(7.7)	41(7.0)
	손상	55(21.5)	124(37.8)	63(32.3)	62(35.2)	54(25.4)	43(23.4)	74(36.1)	62(31.8)	179(30.7)
	보통	91(35.5)	99(30.2)	54(27.7)	42(23.9)	94(44.1)	62(33.7)	53(25.9)	75(38.5)	190(32.5)
	건강	35(13.7)	17(5.2)	17(8.7)	16(9.1)	19(8.9)	22(12.0)	14(6.8)	16(8.2)	52(8.9)
	매우건강	66(25.8)	56(17.1)	44(22.6)	41(23.3)	37(17.4)	53(28.8)	42(20.5)	27(13.8)	122(20.9)
	계	256	328	195	176	213	184	205	195	584
	χ^2, p 확률	38.597, .000 ***		23.369, .003 **		33.735, .000 ***				
모발손상 원인	환경오염	27(10.7)	19(5.8)	20(10.4)	12(6.9)	14(6.7)	5(2.7)	18(8.9)	23(12.0)	46(8.0)
	영양부족	43(17.0)	31(9.5)	26(13.5)	17(9.7)	31(14.8)	25(13.6)	25(12.4)	24(12.5)	74(12.8)
	잡은삼푸	44(17.4)	42(12.9)	29(15.0)	29(16.6)	28(13.3)	12(6.5)	30(14.9)	44(22.9)	86(14.9)
	미용시술	109(43.1)	219(67.4)	101(52.3)	111(63.4)	116(55.2)	137(74.5)	111(55.0)	80(41.7)	328(56.7)
	기타	30(11.9)	14(4.3)	17(8.8)	6(3.4)	21(10.0)	5(2.7)	18(8.9)	21(10.9)	44(7.6)
	계	253	325	193	175	210	184	202	192	578
	χ^2, p 확률	37.708, .000 ***		12.870, .116		54.592, .000 ***				

*** p<.001 ** p<.01 * p<.05

〈표9〉 삼푸제 사용여부, 종류 및 사용 횟수

구분	요인	성별		연령별			지역별			전체
		남학생	여학생	19-20세	21-22세	23세이상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사용여부	반드시	202(80.5)	303(93.8)	173(90.6)	154(89.0)	180(84.9)	170(92.9)	175(86.2)	162(85.3)	507(88.0)
	가끔	41(16.3)	19(5.8)	17(8.9)	14(8.1)	29(13.7)	13(7.1)	22(10.8)	25(13.2)	60(10.4)
	전혀	8(3.2)	1(0.3)	1(0.5)	5(2.9)	3(1.4)	·	6(3.0)	3(1.6)	9(1.6)
	계	251	325	191	173	212	183	203	190	576
	χ^2, p 확률	25.348, .000 ***		7.180, .127		9.449, .050 *				
종류	모발상태따라	91(36.3)	214(65.2)	94(48.2)	105(60.7)	106(50.2)	92(50.0)	108(53.5)	105(54.4)	305(52.7)
	삼푸린스겸용	74(29.5)	53(16.2)	43(22.1)	28(16.2)	56(26.5)	54(29.3)	34(16.8)	39(20.2)	127(21.9)
	경우에 따라	86(34.3)	61(18.6)	58(29.7)	40(23.1)	49(23.2)	38(20.7)	60(29.7)	49(25.4)	147(25.4)
	계	251	328	195	173	211	184	202	193	579
	χ^2, p 확률	47.935, .000 ***		9.935, .042 *		10.761, .029 *				
사용횟수	매일	145(57.3)	228(69.7)	141(72.7)	117(67.2)	115(54.2)	105(57.1)	147(72.1)	121(63.0)	373(64.3)
	주4회	72(28.5)	78(23.9)	39(20.1)	50(28.7)	61(28.8)	67(36.4)	40(19.6)	43(22.4)	150(25.9)
	주3회	27(10.7)	20(6.1)	12(6.2)	5(2.9)	30(14.2)	12(6.5)	11(5.4)	24(12.5)	47(8.1)
	주1-2회	9(3.6)	1(0.3)	2(1.0)	2(1.1)	6(2.8)	·	6(2.9)	4(2.1)	10(1.7)
	계	253	327	194	174	212	184	204	192	580
χ^2, p 확률	16.987, .001 **		28.124, .000 ***		27.421, .000 ***					

*** p<.001 ** p<.01 * p<.05

응답해 조사 대상자인 대학생은 자연스런 갈색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자연갈색을 원하는 비율이 높았고(55.6%), 남학생(14.8%)은 여학생에 비해 황금색을 좋아하는 비율이 약간 높았다(p<.05).

3. 모발관리

1) 모발손상 정도 및 원인

모발손상 정도에 대해「보통」38.5%,「손상」31.8%,「매우 건강」13.8%,「건강」8.9%의 비율로 응답해 대부분의 대학생이 자신의 모발이 손상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볼 때에

〈표10〉 모발관리 정보수집원 및 관리방법

구분	요인	성별			연령별			지역별			전체
		남학생	여학생	19-20세	21-22세	23세이상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정보수집원	방송매체	61(24.4)	93(28.8)	53(27.7)	44(25.7)	57(27.0)	46(25.3)	53(26.5)	55(28.8)	154(26.9)	
	잡지·정보지	29(11.6)	136(42.1)	49(25.7)	58(33.9)	58(19.2)	35(19.2)	59(29.5)	71(37.2)	165(28.8)	
	미용강좌	5(2.0)	6(1.9)	4(2.1)	3(1.8)	4(1.9)	1(0.5)	7(3.8)	3(1.6)	11(1.9)	
	디자이너	18(7.2)	47(14.6)	25(13.1)	20(11.7)	20(9.5)	20(11.0)	26(13.0)	19(9.9)	65(11.3)	
	기타	137(54.8)	41(12.7)	60(31.4)	46(26.9)	72(34.1)	80(44.0)	55(27.5)	43(22.5)	178(31.1)	
	계250	323	191	171	211	182	200	191	573		
	x2, p-확률	139.712, .000 ***			5.308, .724			31.304, .000 ***			
관리방법	트리트먼트	62(25.8)	166(51.2)	70(36.8)	72(42.6)	86(42.0)	51(28.5)	84(42.4)	93(49.7)	228(40.4)	
	잘말린다	25(10.4)	48(14.8)	37(19.5)	17(10.1)	19(9.3)	14(7.8)	31(15.7)	28(15.0)	73(12.9)	
	좋은제품사용	140(58.3)	76(23.5)	69(36.3)	62(36.7)	85(41.5)	100(55.9)	61(30.8)	55(29.4)	216(38.3)	
	머리코팅	4(1.7)	17(5.2)	5(2.6)	9(5.3)	7(3.4)	6(3.4)	11(5.6)	4(2.1)	21(3.7)	
	두피맛사지	9(3.8)	17(5.2)	9(4.7)	9(5.3)	8(3.9)	8(4.5)	11(5.6)	7(3.7)	26(4.6)	
	계	240	324	190	169	205	179	198	187	564	
	x2, p-확률	79.272, .000 ***			13.494, .096			40.848, .000 ***			

*** p<.001 ** p<.01 * p<.05

남학생의 경우에는 「대체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여학생은 건강한 모발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여학생이 자주 다양한 형태의 헤어스타일로 변화시키기 위해 염색 등을 하고 있는 데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모발 손상 요인에 대해서는 「미용 기술」56.7%, 「잡은 샴푸」14.9%, 「영양 불균형」12.8%의 비율로 응답해 대부분의 대학생이 미용 기술로 인해 모발이 손상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 샴푸제 사용여부, 종류 및 사용 횟수

조사 대상자 전체적으로 볼 때 샴푸제를 「반드시 사용한다」는 응답이 88.0%로 가장 많았고, 「가끔 사용한다」10.4%,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1.6%로 나타나 대부분의 대학생이 샴푸제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학생(80.5%)보다 여학생(93.8%)이 샴푸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p<.001).

사용하는 샴푸제는 「모발상태에 따라」선택하여 사용한다는 응답이 52.7%의 비율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모발 상태에 따라 샴푸제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p<.001).

또한 조사 대상자들의 일주일 샴푸 사용 횟수는

「매일 사용한다」는 응답이 64.3%로 가장 많았고, 「주4회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이 25.9%로 나타나 대부분의 대학생이 주4회 이상 샴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용 횟수가 많았으며(p<.01),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샴푸를 더 자주 하고 있었다(p<.001).

3) 모발관리 정보수집원 및 관리방법

조사대상자 전체에서 모발관리를 위한 정보수집은 「잡지·정보지」28.8%, 「방송매체」26.9%, 기타 31.1% 「디자이너」11.3%, 「미용강좌」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분석에서 여학생의 경우는 「잡지·정보지」에서 얻는다는 응답이 42.1%, 「방송매체」를 통해서 28.8%, 「헤어디자이너」의 조언을 받는 경우가 14.6% 등 전문적인 정보를 많이 이용하는 반면, 남학생의 경우는 기타가 54.8%로 나타나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간에 차이를 보였다(p<.001).

또한 조사 대상자의 모발관리 방법은 「트리트먼트」제품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40.4%로 가장 많았고, 「좋은 제품을 사용」한다는 항목도 38.3%로 나타나서 모발관리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남학생의 경우는 「좋은 제품 사용」58.3%, 「트리트먼트 사용」25.8%, 「잘 말린다」10.4%, 여학생의 경우

에는「트리트먼트 사용」51.2%, 「좋은 제품 사용」23.5%, 「잘 말린다」14.8%로 나타나,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발관리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01$). 지역별 분석에서는 서울시의 대학생은 모발관리 방법으로 좋은 헤어 제품을 사용하는 학생이 많은 반면, 광역시와 중소도시의 대학생은 트리트먼트 제품으로 모발관리를 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헤어패션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헤어스타일, 모발염색 및 모발관리의 경향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비교·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자신의 헤어스타일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인 대학생은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서울특별시의 대학생이 광역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서울의 대학생은 짧은 커트를, 광역시와 중소도시의 대학생은 긴 머리를 선호했다($p<.001$).

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서울특별시의 대학생이 광역시와 중소도시의 대학생보다 높았다($p<.001$). 미용실을 선택하는 이유는 남학생은 「거리」, 여학생은 「기술」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p<.001$). 이러한 결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헤어패션의 미적인 면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2. 조사 대상자는 대부분이 모발염색을 해 본 경험이 있었으며, 연령이 많은 대학생이 적은 대학생보다 모발염색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p<.001$). 염색을 하는 이유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변화 추구나 아름다움을 위해서 염색을 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며($p<.001$), 좋아하는 모발색은 자연갈색이 많았으나, 서울시의 대학생은 황금색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서울특별시의 대학생이 광역시나 중소도시의 대학생보다 모발염색 후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으며($p<.001$), 여학생은 모발염색이 헤어스타일을 돋보이게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p<.001$).

3.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모발이 많이 손상되었다고 응답했으며($p<.001$), 서울특별시의 대학생이 모발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p<.001$). 모발손상의 원인으로 여학생은 「미용시술」을 꼽았으며, 남학생은 그 원인이 다양했다($p<.001$).

샴푸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사용하고 있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p<.001$). 여학생은 모발상태에 따라 샴푸를 선택하여 사용한다는 비율이 높았고($p<.001$), 서울특별시의 대학생이 자주 샴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모발관리 정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얻고 있었다($p<.001$). 모발관리를 위해 여학생은 대부분 헤어클리닉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남학생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으며($p<.001$),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모발관리를 잘하면 모발이 건강해지고 헤어스타일도 돋보인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p<.05$).

본 연구가 다양한 헤어패션이 출현될 것으로 예측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개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멋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헤어패션 행동을 이해하고, 그들이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헤어패션을 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1) 이의수 (1998). *모발과학*. 현문사, p.5.
- 2) 광형심 (1999). 여성의 모발미용에 대한 의식행태 조사연구.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 3) 김윤경 (2002). 염색 및 탈색에 의한 모발의 형태학적인 변화. 대구카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 4) 최귀자 (2000). 미용실 고객의 모발에 대한 인식도 조사. *보건복지연구 제4호*. 경산대학교 보건복지연구소, p.3.
- 5) 김명희 (2001). 헤어스타일 모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

- 6) 김희숙 (1996). 20세기 화장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2(1), pp.27-52.
- 7) 최현희 (2000). 미용실 종사자들의 두발치치에
대한 인식도와 관련요인 분석. 보건복지연
구 제4호. 경산대학교 보건복지연구소, p.4.
- 8) 이상근 외 3인 (1999). 모발염색 디자인. 형설출
판사, p.23.
- 9) 최귀자 (2001). 일부 여성의 모발염색 실패와 관
련요인 분석.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8.
- 10) 김순희 (1996). 퍼머, 염색, 탈색 시술에 따른 두
발의 역학적 영양학적 변화와 전자현미경
관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p.4.
- 11) 최귀자 (2001). Op. cit., p.5.
- 12) 신지현 (1997). 신미용학개론. 수문사, p.16.
- 13) 김운경 (2002). Op. cit., pp.2-3.
- 14) 곽형심 (1997). 모발관리학. 정문각, pp.68-72.
- 15) 김병미, 김지향 (2001). 모발염색에 관한 연구.
과학교육연구 제32집. 공주대학교 사범대
학 과학교육연구소, pp.55-67.
- 16) 양숙희 (2002). 헤어스타일에 대한 여성들의 의
식행태와 관련요인 분석. 경산대학교 보건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2-57.
- 17) 조진애, 김경화 (1998). 서양여성의 헤어스타일
과 모자의 변천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보건과학연구논집, p.8.